

2015. 5. 11. ~ 5. 17. 주간

33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과채 가격동향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대파양파마늘 수급동향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보성차 건엽 중국 수출길...1.7t 상차식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쌀 생산비 절감기술
도단위 연시회 개최

정책동향

농업정보 전용홈페이지 구축, 생산·가공·유통정보 한눈에

해외 농업정보

이집트, 국내산밀 현재까지 750,000톤 구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감자, 당근, 양배추

- 감 자 : 감자 가격은 시설봄감자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40,000~45,000원/20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시설봄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과 비슷하지만 전월보다 높은 27,000~32,000원/20kg 전망
- 양배추 : 양배추 가격은 시설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월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5,000~6,000원/8kg 전망

▶ 과 채 : 오이, 풋고추

- 오 이 : 4월의 잦은 비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백다다기오이·취청오이 5월 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8%, 27% 내외 높을 전망
- 풋고추 : 풋고추 5월 가격은 면적 준데다, 작황도 좋지 않아 작년보다 낮은 상품 10kg에 청양계는 38,000~43,000원, 녹광은 45,000~50,000원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대파·양파·마늘 수급동향

- 대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30%인 3,408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2,413원/kg(전년 1,015원 대비 137% ↑)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9,171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830원/kg(전년 659원 대비 26% ↑)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6%인 5,425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라남도)

- ▶ 보성차 건엽 중국 수출길...1.7t 상차식
- ▶ 중국 상하이서 최고의 맛 남도음식 알린다
- ▶ 국산 포도 중국 수출길 뚫었다...올 수확 생산물 수출될 듯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업기술원, 쌀 생산비 절감기술 도단위 연사회 개최
- ▶ 농업 6차산업화 전문교육 6일 순천대서 개최
- ▶ 해남군, 영농 안전관리 지원 나서
- ▶ 한국 차산업활성화에 차산업연구소 앞장서다

❁ 정책동향(전라남도)

- ▶ 농업정보 전용홈페이지 구축, 생산·가공·유통정보 한눈에
- ▶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 전라남도 신규 귀농·귀촌인 성공정착 위해 팔 걷어
- ▶ 가족과 함께 전통 모내기 체험 참가하세요
- ▶ 전남 종오리농장 AI 일제검사 나서
-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세요
- ▶ “농민 자율성·내적역량 강화로 농정방향 전환해야”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이집트, 국내산밀 현재까지 750,000톤 구매
- ▶ 해외 곡물시장 현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주요 생산지역의 강우로 인한 수확증가 전망으로 5년래 최저치로 하락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3세션 하락세를 꺾고 반등했으나 미국정부 보고서의 미국 농가들이 파종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로 인해 강보합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대두유 가격 이틀연속 강세에 따른 파급효과 및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출수요 호조로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광주일보)

- ▶ 전남 청년농업인 - 곡성 불로치울금농장 노병철 대표
- ▶ 농업 창업 모델 경진대회 영암 김태연 김스팜 대표 '착즙 과채주스 개발' 대상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2015년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신청

- 신청기한 : 5. 22.한
- 접수기관 :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량 : 75,000ha(밭작물 25,000, 동계작물 50,000)
- 사업비 : 35,000백만원(국비 100%)
- 지원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250천원/ha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400천원/ha
(논재배 식량·사료작물) : 500천원/ha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가입품목 : 벼, 고구마, 옥수수
- 가입기간 : 5. 4. ~ 6. 12.(벼 4. 20.~6. 5, 고구마 5. 4.~5. 29. 등)
- 가입자격 : 벼 1천m², 고구마 2천m², 옥수수 3천m² 이상 재배농가 및 법인
- 사업량 : 600ha/46개 품목(본사업 28, 시범 18)
- 사업비 : 600억원(국비 300, 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120)
- 취급기관 : 지역농협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산정 지급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5. 1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5/11)	전주 (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0,800	42,800	41,267	↓ 4.7	↓ 1.1
	콩(백태)	35kg	137,000	136,000	136,000	142,000	189,727	↓ 3.5	↓ 27.8
	고구마(밤)	10kg	31,000	30,400	28,650	24,200	27,317	↑ 28.1	↑ 13.5
	감자(수미)	20kg	48,600	46,400	37,300	23,250	26,947	↑ 109.0	↑ 80.4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710	590	480	348	672	↑ 104.0	↑ 5.7
	양배추	10kg	7,100	6,900	5,975	3,810	6,477	↑ 86.4	↑ 9.6
	오이(다다기계통)	15kg	26,333	24,000	42,583	23,333	27,958	↑ 12.9	↓ 5.8
	애호박	8kg	11,200	11,600	24,450	13,700	12,685	↓ 18.2	↓ 11.7
	토마토	10kg	22,200	25,200	31,750	25,900	26,931	↓ 14.3	↓ 17.6
	무(월동)	1kg	500	510	525	500	608	-	↓ 17.8
	당근	20kg	23,200	23,200	22,200	31,550	30,370	↓ 26.5	↓ 23.6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40,000	772,400	↑ 28.1	↑ 6.2
	풋고추	10kg	53,000	67,800	45,900	52,350	49,430	↑ 1.2	↑ 7.2
	마늘(난지)	10kg	35,400	35,400	34,600	27,400	39,073	↑ 29.2	↓ 9.4
	양파	1kg	790	830	748	635	800	↑ 24.4	↓ 1.3
	대파	1kg	1,730	1,720	1,540	1,055	1,653	↑ 64.0	↑ 4.7
	파프리카	5kg	15,600	21,400	25,150	23,550	25,790	↓ 33.8	↓ 39.5
	방울토마토	5kg	18,200	19,000	22,200	18,350	19,989	↓ 0.8	↓ 8.9
	딸기	1kg	6,600	6,800	8,675	7,600	6,773	↓ 13.2	↓ 2.6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5,800	65,800	63,800	84,100	79,417	↓ 21.8	↓ 17.1
	배(신고)	15kg	41,200	40,800	39,200	46,800	46,297	↓ 12.0	↓ 11.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5/11)	전주 (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500	534,000	567,222	↓ 0.4	↓ 6.2
	들깨	45kg	420,000	420,000	427,500	450,000	371,022	↓ 6.7	↑ 13.2
	새송이버섯	2kg	8,600	8,600	8,300	8,500	8,253	↑ 1.2	↑ 4.2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445	6,228	6,434	6,235	6,023	↑ 3.4	↑ 7.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93	1,840	1,868	1,947	1,800	↑ 7.5	↑ 16.3
	닭고기	1kg	5,378	5,412	5,338	6,348	5,761	↓ 15.3	↓ 6.6
	계란(특란)	10개	1,994	1,988	1,958	2,031	1,864	↓ 1.8	↑ 7.0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2	2,296	↑ 0.2	↑ 11.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5. 11.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699 천원	4,731 천원	4,082 천원	↓ 0.7	↑ 15.1
	거세	5,562 "	5,620 "	5,400 "	↓ 1.0	↑ 3.0
송아지 (6~7월)	암	2,161 "	2,130 "	1,613 "	↑ 1.5	↑ 34.0
	수	2,692 "	2,680 "	2,492 "	↑ 0.4	↑ 8.0
육우(600kg)		3,592 "	3,587 "	2,520 "	↑ 0.1	↑ 42.5
젖소수송아지(7일령)		149 "	149 "	16 "	-	↑ 831.3
돼지(110kg)		436 "	433 "	401 "	↑ 0.7	↑ 8.7
육계(원/kg)		1,652 원	1,901 원	1,368 원	↓ 13.1	↑ 20.8
계란(원/특란10개)		1,421 원	1,403 원	1,320 원	↑ 1.3	↑ 7.7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435 원	-	↓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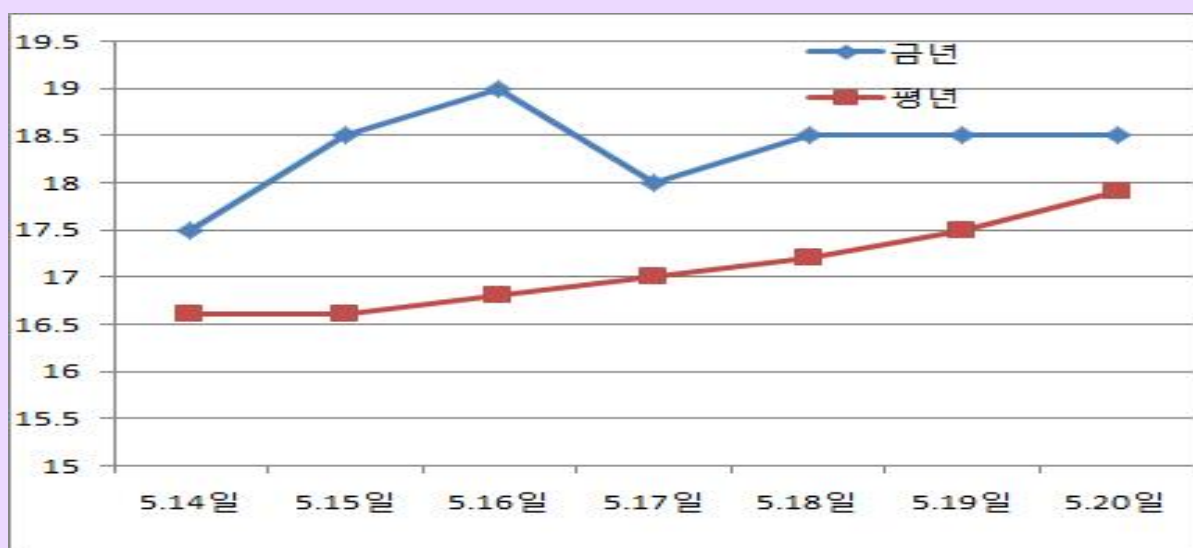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8.4	17.1	1.3	22.7	22.1	0.6	14.0	13.2	-0.5	3.0
5. 14.(목)	17.5	16.6	0.9	23	21.5	1.5	12	12.8	0.8	2.9
5. 15.(금)	18.5	16.6	1.9	21	21.6	-0.6	16	12.8	-3.2	3.2
5. 16.(토)	19	16.8	2.2	23	21.8	1.2	15	12.9	-2.1	2.6
5. 17.(일)	18	17	1	23	21.9	1.1	13	13.2	-0.2	3.3
5. 18.(월)	18.5	17.2	1.3	23	22.2	0.8	14	13.4	0.6	3.2
5. 19.(화)	18.5	17.5	1	23	22.6	0.4	14	13.6	0.4	3.3
5. 20.(수)	18.5	17.9	0.6	23	22.9	0.1	14	13.9	0.1	2.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감자, 당근, 양배추

○ (감 자)

- 감자 가격은 시설봄감자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40,000~45,000 원/20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시설봄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과 비슷하지만 전월보다 높은 27,000~32,000원/20kg 전망

○ (양배추)

- 양배추 가격은 시설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월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5,000~6,000원/8kg 전망

과 채 : 오이, 풋고추

○ (오 이)

- 4월의 잦은 비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백 다다기오이·취청 오이 5월 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8%, 27% 내외 높을 전망

○ (풋고추)

- 풋고추 5월 가격은 면적 준데다, 작황도 좋지 않아 작년보다 낮은 상품 10kg에 청양계는 38,000~43,000원, 녹광은 45,000~50,000원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대파·양파·마늘 수급동향

○ (대 파)

- 재배면적 : 3,408ha(전년 대비 2.9% 감, 평년 대비 0.1% 감) - 전국의 30%
 - 주 재배 : 진도 1,398, 신안 1,176, 영광 340, 해남 113 등
- 밭떼기 거래 : 3~7천 원/3.3m²(전년 3~5천 원/3.3m²)
 - 3.3m²당 거래가격 : 진도 3~4.5천원, 신안 5~7, 영광 5~7
- 출하동향 : 진도 100%, 신안 100%, 영광 85% 출하
- 도매시장 가격('15.5.4.현재, 상품기준)
 - 대파 : 2,413원/kg(전년 1,015원 대비 137% ↑, 평년 1,655원 대비 46% ↑)

○ (양 파)

- 재배면적 : 9,171ha(전년 대비 24.1% 감, 평년 대비 19.3% 감) - 전국의 51%
 - 조생종 1,742(19%), 중만생종 7,429(81%)
- 밭떼기 거래
 - (조생종) 8~11천원/3.3m²(전년 5~7천원/3.3m²) * 90%이상 거래완료
 - (중만생) 8~9천원/3.3m²(전년 5~6천원/3.3m²) * 10%미만 거래
- 출하동향 : 고흥 65%, 무안 7%(조생종 40%) 출하
 - 조생종 본격출하 시기 : 고흥(4. 18 ~ 5. 15), 무안(4. 27 ~ 5. 15)
- 도매시장 가격('15.5.4.현재, 상품기준)
 - 양파 : 830원/kg(전년 659원 대비 26% ↑, 평년 840원 대비 1% ↓)

○ (마 늘)

- 재배면적 : 5,425ha(전년 대비 26.4% 감, 평년 대비 32.8% 감) - 전국의 26%
 - 남도 4,232(78%), 대서 1,031(19%), 기타 162(3%)

- 밭떼기 거래 : 11~12천 원/3.3m²(전년 7~8천 원/3.3m²)
 - 거래실적 : 고흥 72%, 해남 63%, 신안 66% * 전년도 거래실적 35~40%
- 도매시장 가격('15.5.4.현재, 상품기준)
 - 마늘 :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평년 3,500원 대비 1% ↑)

* 출처 : 전라남도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보성차 건엽 중국 수출길...1.7t 상차식

- 생산자조합, 연간 여름차 100 t 수출...해외 판로확대 기대 -

- 보성차생산자조합(대표 정형래)은 최근 농업회사법인 (주)권텃녹차(대표 유희훈)를 통해 친환경 보성차 건엽 1.7t을 중국 항주로 수출하는 첫 상차식을 가졌다.
- 이날 상차식에는 정형래 대표와 유희훈 대표를 비롯한 참여 농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수출을 기념하고, 중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유럽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이번에 수출한 차(茶)건엽은 관내 소규모 농가의 차를 보성차생산자조합에서 구매해 가공한 것으로 녹차애플, 화장품 등의 기능성 차 연관제품 생산 원재료로 사용되며, 앞으로도 연간 100톤의 차를 농업회사법인 (주)권텃녹차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 군에 따르면 그동안 차 생산농가에서는 이른 봄에 채취해 만든 첫물차, 두물차 등 고급차 판매소득이 주 소득원이었으나, 이번 수출을 통해 수확을 포기했던 여름 차(엽차용) 판로가 확보됐다.
- 또 연 7억원의 여름 차 수출길이 열려 보성차 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군과 보성차생산자조합은 침체된 차 시장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맞는 국제유기인증 획득과 현지 여건에 맞는 제품디자인 개발, 맛 선호도 조사 등으로 수출국에 맞는 다양한 차와 연관제품을 개발하는 등 해외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녹차와 홍차 등 마시는 차의 판로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음식의 하나인 차의 주요성분(카테킨류, 데아닌, 비타민, GABA, 사포닌, 불소 등)과 약리작용(항산화, 항암, 콜레스테롤 저하, 혈압상승 억제, 심신안정, 학습능력 향상 등) 홍보 및 차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연관제품, 다양한 블랜딩티 등을 개발해 간편하고 맛있게,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지난달 4월초 차를 이용한 미용비누 중국 수출 5억 원 계약에 이어 연달아 수출길이 열려 차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차밭을 다시 정비하는 손길이 분주해 졌다"며 "우리 군에서는 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중앙아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섰으며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보성녹차 판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중국 상하이서 최고의 맛 남도음식 알린다

- 전남도, 상하이국제식품박람회서 ‘남도음식 홍보관’ 운영 -

- 전라남도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연계해 도내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 확대와 남도음식 홍보를 위해 6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상하이국제식품박람회에서 ‘남도음식 홍보관’을 운영한다.
- 이번 식품박람회 참가는 최고의 맛과 멋으로 인식되는 남도음식이 홍보 부족으로 해외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지속적인 해외홍보활동을 통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자재 및 농수산물 식품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전라남도는 중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식품박람회인 상하이국제식품박람회에서 남도음식과 한류 붐으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류음식 품목들을 구성, 전시·시식·시연 등을 하고 관광 동영상 상영 등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 특히 전라남도가 지정한 남도음식명인인 진도전통식품 김영숙 씨가 직접 궁중떡볶이, 담양떡갈비, 잡채, 김밥말이 등 남도음식 시연과 총 19종의 남도음식 전시·시식행사를 실시해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선보인다.
- 배우레 전라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국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남도음식인데 해외에서 남도음식에 대한 홍보행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다”며 “이번 홍보행사를 계기로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통해 전남의 우수 식자재가 여러 나라로 수출되도록 수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는 나주시의 샬롬산업(즉석 가공식품), 동의나라(뽕잎차), 해송식품(조미김), 담양군의 호정식품(한과류), 화순군의 화순불미나리(불미나리즙), 거림제약(홍삼가공품), 고흥군의 인조이내추럴(흑마늘가공품), 무안군의 식품회사 장(볶음고추장) 등 8개 업체가 참가해 전시·홍보 및 바이어 상담 등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 출처 : 전라남도

■ 국산 포도 중국 수출길 뚫었다...올 수확 생산물 수출될 듯

- 국산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7~29일까지 검역본부에서 ‘한·중 식물검역당국간 회의’를 열고 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국산 과일류(열매채소 포함)의 경우 식물검역요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국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최초의 국산 과실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포도에 이어 국산 단감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 검역본부는 또한 중국 측에 포도에 이어 쌀에 대한 수입허용 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국산 파프리카 수입허용 협의를 마무리한 후 쌀에 대한 검토를 진행기로 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측이 요구한 중국산 신선 ‘여지’의 한국 수입요건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중국산 신선 여지는 재배농가 및 선과장 등록, 재배 중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수확 후 증열처리를 거친 것만 수입이 허용된다. 중국산 여지는 현재 냉동으로 연간 800~1000톤 정도 수입되고 있다.
- 검역본부는 이번 제4차 한·중 식물검역회의와 연계해 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촉진 및 확대 차원에서 우리나라 식물위생관리 시스템 확인을 위해 중국 검역관계자에게 경기 화성 포도수출단지, 충남 태안 심비디움 재배온실 및 전북 군산 쌀 종합가공업체인 제희RPC 등의 농산물 재배, 가공 현장을 확인시켰다.
-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을 위해 양국 검역 당국이 관련 규정(고시)을 정비한 후 국내 재배농가 및 선과장 등록, 재배 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올해 수확된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업기술원, 쌀 생산비 절감기술 도 단위 연사회 개최

- 저비용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한 새로운 무논점파 직파기술 소개 -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저비용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해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직파기술인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기술원은 오는 6일 강진군 신전면 용화리 들녘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하여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쌀 생산비 절감기술 도 단위 연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연사회에서는 무논점파 핵심기술 교육과 더불어 각 기종별로 특징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낙연 전남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무논점파기에 탑승하여 파종하는 시연을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 벼 무논점파기술은 씨레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골을 파면서 싹틔운 볍씨를 5~7알씩 모내기과 같이 일정 간격으로 파종하며 1회 작업 시 8~10줄이 파종되고 동시에 비료도 함께 주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은 못자리 설치 등 벼 육묘과정이 생략되는 못자리 없는 벼 재배법으로 관행 모내기과 비교 노동력이 약 35%(63.1시간/1ha → 무논점파 40.8시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 됐다.
- 또한, 기존의 직파기술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입모 불균일과 잡초 발생, 벼 쓰러짐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기술이며 수량성이 기계모내기와 비슷한 게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아울러 이날 연사회에서는 현재 새롭게 개발돼 현장에서 실증 시험 중인 논 전체를 경운하지 않고 모를 심을 자리만 경운하고 동시에 모를 심는 새로운 생산비절감 기술인 부분경운이앙 재배기술도 함께 선을 보였다.
- 황수정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은 “쌀 관세화 등 어려운 쌀 산업여건에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필수이므로 앞으로 무논점파를 시범단지 확대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업 6차산업화 전문교육 6일 순천대서 개최

- 사업계획서 작성·마케팅 전략 등 우수사례 중점 교육 -

- 전라남도는 6일 순천대학교 70주년 대강당에서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6차산업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전남발전연구원의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3월 27일 실시한 6차산업 사업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교육 대상은 도내 6차산업화 경영체 예비인증업체와 인증 신청 희망자 등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추진될 6차산업 경영체 인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제품 기획에서 유통까지의 마케팅 전략, 6차산업화 우수 사례 등 실수요 위주의 심도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 교육 참여는 해당 시군(농정부서)과 전남발전연구원 전남농업 6차산업화지원센터(061-280-3995)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 장덕기 전남농업 6차산업화지원센터장은 “전남은 6차 산업화에 필요한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 6차 산업의 수익모델을 육성해 보급하는 등 농도로서 6차산업화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지난 3월 개최된 사업설명회를 통해 6차산업화에 대한 도내 농업인 등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6차 산업화의 경영체를 확대 육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해남군, 영농 안전관리 지원 나서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농업인들의 영농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이를 위해 군은 우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안전 등화장치를 설치토록 지원한다.
- 올해 총 사업비 2천2백40만원(자담 20%)으로 160조를 고령농가와 영세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운기 안전 등화장치는 야간도로를 주행하는 경운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경운기 트레일

러에 부착하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농약 안전사용 장비인 방제복과 개량마스크, 보안경을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원되는 것으로, 1억5천1백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780조(1조 : 방제복, 개량마스크, 보안경)를 농가에 배부한다.
- 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적인 장비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한국 차산업활성화에 차산업연구소 앞장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국내 최초 참녹 품종 확대 및 홍차 개발 박차 -

- 국내 차(茶)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최경주 원장)은 국내 최초 품종인 참녹 등 13개 품종 개발과 봄, 여름, 가을 시기 차잎을 이용 년중 녹차, 홍차 제조방법을 기술 이전하여 차생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앞으로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활로 모색을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지난해 차산업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 입법('14. 12. 29)이 국회통과 되기까지 각종 자료 제공 및 사업 분야별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차산업발전 초석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또한 오늘 한국차중앙협의회 주관으로 보성군에서 개최되는 한국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심포지움('15. 5. 7)의 발표 중 『한국차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전략(차산업연구소 최정)』 주제로 국내외 차산업현황과 문제점, 국내 차품종개발, 유기재배기술, 다양한 상품개발 등 방법을 제안하여 앞으로 차산업활성화 하는데 국내 차연구 방향을 밝혔다.

- 국내 차생산 농가들과 차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 200여명이 모여서 국내 차산업 발전 방향과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 관련 기관 협력방안에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차산업연구소 방극필 소장은 “국내 차산업활성화를 위해 차 관련 유관기관 모두 유기적 협력하여 차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이용한 유기재배 품종다원 만들기 및 제품의 다각화를 통해 차 소비촉진 등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농업 생산·가공·유통 정보 한눈에

- 전남도, 농업정보 전용 누리집·앱 구축 -

- 전라남도는 농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전라남도 농업정보 전용 누리집 및 모바일 앱(<http://nj.jeonnam.go.kr>)’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 누리집은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 가공까지 농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 기상을 비롯해 농업 기술, 정책동향, 해외수출입동향에 이르기까지 6개 대분류, 27개 소제목으로 구성했다.
- 지금까지 여기 저기 산재한 많은 농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농업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농축산물을 과일, 축산, 식량, 채소, 특용작물 5대 품목으로 분류해 본인이 재배하고 있는 관심 품목에 대한 정보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 또한 이용률이 많고 유익한 정보 위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강화해 기존 유사 누리집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 누리집은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전라남도 농업정보’를 검색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회원 가입 없이도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

관심지역과 마이메뉴를 설정하면 설정된 관심지역과 메뉴를 표시해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축됐다.

- 이와함께 변화하는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게 모바일용 누리집 및 앱을 개발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영농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토록 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은 5월중 등록 완료 예정이다.
- 주순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귀농·귀촌인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8월 농업정보팀을 신설한 후, 매주 농업정보지를 발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군 반상회의와 이장회의 때 자료를 배포하고,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 농업인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격월로 정보지를 발간해 도내 선도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전라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달부터 판매 중인 벼에 이어 이달부터 고구마와 옥수수, 시설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 품목에 따라 연말까지 수시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 벼는 6월 5일까지, 고구마는 5월 29일까지, 옥수수는 6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시설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특히 시설작물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업과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판매된다.
-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등 11종과 농업시설물이다.
- 시범사업인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등 9종은 11개 시군(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영암, 무안, 강진, 영광)에서 판매된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2001년 도입돼 15년째를 맞고 있다. 역사는 짧지만 가입 대상 품목이 46개로 확대됐고, 사과와 배 등 일부 품목은 가입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 올해부터는 벼의 경우 특약을 통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병해충도 보상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제도로 정착돼가고 있다.
- 보험료는 50%는 국비에서 30%는 지방비에서 지원돼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므로 벼의 경우 ha당 농가부담금이 9만 5천 원 수준이다.
- 위삼섭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제도”라며 “태풍피해가 많은 해안지역이나 우심지역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전남도 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2만 5천359 농가 4만 5천459ha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태풍이 없어 재해 보험료로 74억 원이, 3개의 태풍이 지나간 2012년에는 1천501억 원이 지급됐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신규 귀농·귀촌인 성공 정착 위해 팔 걷어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도내 신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시군 담당자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연찬회』를 지난 4월 30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은 이제 갓 귀농한 신규농업인에게 지역사회 선도농가가 작물재배에 따른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사업으로
- 전남은 전년도 315명에 이어 올해 선도농가 118명, 귀농연수생 126명 등 총 244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선도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등의 노하우를 귀농연수생에게 전수하여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까지 귀농·귀촌인 2만 가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펼친 결과 '13년 2,506가구에서 '14년 4,343가구로 73%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 4위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박혜량 농업교육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각 참여주체 간 사업방향 공유 및 공감대 형성으로 귀농 창업역량 강화, 현지 정착률을 제고, 현지 적응력 및 농업기술력 배양 등을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가족과 함께 전통 모내기 체험 참가하세요

-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농업테마공원 벼 한살이 체험장 일원에서 초·중·고생 및 동반가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 ‘모내기 시연 및 체험’ 행사를 개최기로 하고 21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 전통 모내기 체험은 농업박물관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옛 방식에 따라 만들어 놓은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찌고, 못줄을 띄워가면서 전통 방식대로 모를 심는 체험행사다.
- 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모내기 유래와 방법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남도들노래 시연이 펼쳐진다. 이후 참가자들이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손으로 직접 찌지푸라기를 이용해 ‘모춤’을 만들고 이를 지게에 저 써레질이 끝난 논으로 옮기게 한 다음 못줄을 띄워가며 모를 한 줄 한 줄 심게 된다.
- 또 이날 행사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제51호)로 지정된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이영자·박동매) 등 보존 회원 30여 명을 초청해 참가자들과 함께 ‘모 찌는 소리’와 ‘모심는 소리’ 등을 불러 흥 돋운다.

- 한편 농업박물관은 모내기가 끝난 뒤 참가자 전원에게 못밥(설렁탕)과 농주 등 옛 농부들이 협동노동 후 들녘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나눠먹던 먹을거리 체험도 제공한다.
- 행사 참가 신청은 21일까지 전화 및 박물관 누리집(www.jam.go.kr)을 통해 초·중·고 학생 및 동반가족 300여 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체험 참가비는 개인당 5천 원이며, 참가자들은 물장화·긴 양말, 여벌옷, 모자, 수건 등을 준비해야 한다.
- 김우성 전라남도농업박물관장은 “현대화된 농업으로 기계식 모내기가 이뤄지고 전통 방식의 손모내기를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돼 잊혀져가는 전통 모내기를 재현, 직접 체험토록 해 선조들의 지혜와 옛 농경생활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전라남도농업박물관(www.jam.go.kr) 061-462-2796 ~ 9

*출처 : 전라남도

◆ 전남 종오리농장 AI 일제검사 나서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오는 18일까지 도내 종오리농장의 AI 일제검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 이는 지난 3월 구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발생이 없어 진정되는 추세이나, 경기도 및 전북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종오리(종란 생산 및 부화)농장에 대한 사전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일제검사 대상은 도내 사육 중인 종오리농장 32개소 179동이다.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시료채취반을

충동원하고 공휴일을 포함해 9일까지 시료(알·분변 등) 채취를 완료할 예정이다.

- 이어 AI 검사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채취된 알 시료로 항체 형성 유무를 검사하고, 분변 시료로는 AI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하는 등 2차례 반복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방역조치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한편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을 위해 연중 상시검사 체계로 전환하고 한층 강화된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오리 농장의 경우 사육 중 1회 검사하던 방식에서 3단계 검사체계로 전환, 1단계로 입식 전 비어 있는 축사를 검사한 후 입식을 허용하고, 2단계로 사육 중 발생하는 폐사체(25일령 이상의 설사 등 임상증상을 보이는 오리)를 수거해 검사하며, 3단계로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오리 출하가 가능하다.
- 또한 종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는 3단계 검사(입식 전, 폐사체, 출하 전)와 함께, 연 4회 일제검사를 실시해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또한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1~5월, 9~12월(9개월간)은 철새 도래지 검사를 강화해 기존 6개 지역 외에 15개 지역을 추가 지정, 총 21개 지역에 대한 야생철새 분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 검색하고 있다.
- 이태욱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가금류 사육농가 중 종오리의 경우 AI에 감염돼도 폐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급감, 활력 저하 등 의심되는 증상 발견 즉시 축산위

생사업소 및 시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세요

- 전라남도는 임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새로 마련돼 영림업 또는 별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법인 제외)이 올 2월 3일 이후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 그동안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은 농업용과 어업용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에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 환급 임업용 기자재는 △필름과 그 부속자재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 △부직포 △버섯재배용 배지 △버섯재배용기 △방조망 △방풍망 △양수기 △동력예취기 △야생화용 종자류 △무인헬리콥터 △로더(2톤 미만) △굴삭기(1톤 미만) △고압세척기 △저온저장고 △환풍기 △수확용 상자 △야생화 재배용 배지 △야생화 재배용 화분 △유해동물(해충) 포획기 등 24종이다.
- 환급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산림조합 제외)에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직접 세무서에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신

청하면 된다.

-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임업경영활동을 저해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산주, 임업단체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민 자율성·내적역량 강화로 농정방향 전환해야”

- 시장개방 가속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가 아닌 농업인들의 자율성과 내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이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김동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8일 aT센터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농정혁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우리농업이 시장개방 가속화로 판로가 위축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고령화,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 행사를 주최한 김동환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성장률 및 소득정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농업은 수출확대, 6차 산업화, 다원적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정부주도형보다는 농업인들의 자율성과 내적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농정이 전환되고 농협과 같은 생산자조직의 역할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농정혁신방향으로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선별적 정책, 농촌자원 개발, 농업구조 고도화 등을 강조했다.
- 특히 그는 “모든 경영체와 모든 작목 및 업종에게 동일한 비전에 입각한 획일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평균적 정책 보다는 선별적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경력을 구비한 농가들은 소득보전보다는 토지, 노동, 자본 등 농업생산자원에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농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500만~3000만원 미만의 중간규모는 농촌자원 등을 활용해 농외소득을 얻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500만원 미만 농가 중 총소득이 높은 농가는 취미농가로 분류하고, 총소득이 낮은 농가를 저소득 농가로 분류해 소득보전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시설채소, 축산과 같은 작목이나 업종은 적절한 규제와 자본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작목이나 업종은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지원을 병행해 다원적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이어서 이태호 교수는 “농업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고 능력 있는 인력의 농업참여가 필요하다”며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매력 있는 정주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문화, 전통, 풍광, 음식, 어메니티 같은 농촌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외에도 이태호 교수는 농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소비자 수요변화에 부응한 품목정책 재정비, 기술혁신 등도 주문했다.

-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서종석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중 하나로 농업통계의 농림축산식품부 재이관을 제안했다.
- 그는 통계청의 농업통계의 문제점과 관련, “클릭수로 통계생산의 여부 혹은 축소를 결정하는 안이한 방식은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농식품 분야의 정책수립에 커다란 모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종석 교수는 “개방화, 고령화, 후계영농인력확보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며 “농식품통계 전반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7. 해외 농업정보

◆ 이집트, 국내산밀 현재까지 750,000톤 구매

이집트 공급부장관에 따르면 이집트는 4월 중순 이후 국내산밀 약 750,000톤을 구매했다고 한다. 공급부장관 칼리드 하나피는 이집트정부가 약 3.7백만 톤의 국내산 밀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0월 초까지 전락비축물량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7월중순 쯤 국내산밀 구매가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국영 곡물 수입업체 GASC에 따르면 국가 곡물수입업체는 현재시즌 이후 국내산밀 약 700,000톤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집트는 국내산밀 3.7백만 톤에 대해 약 100억 파운드(13.1억 달러)에 구매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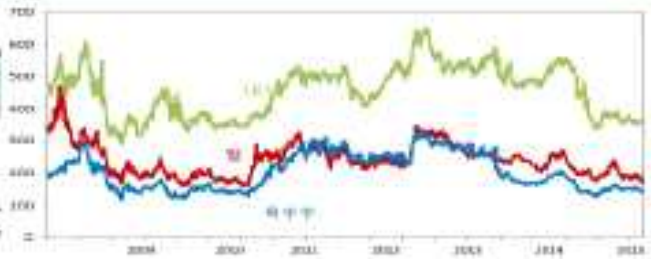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5. 5. 5.(시카고 선물거래소)

일가격, 기후개선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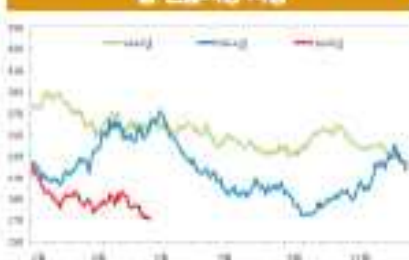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5.5)	전일대비	전일평균 (15.4)	2014 평균
밀	170.49	▼1.1%	184	216
옥수수	142.20	▲0.7%	147	164
대두	365.01	▲1.1%	357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계곡연립밀: 557), 옥수수, 대두의 근물(밀: 옥수수, 대두: 5월물) 장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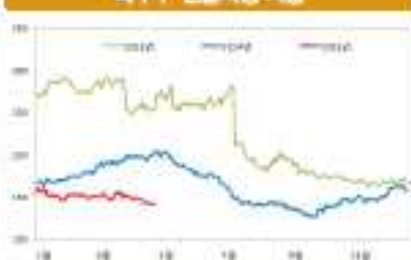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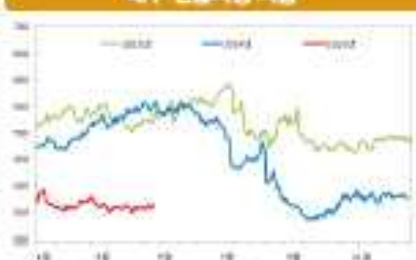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주로 생산지역의 강우로 인한 수확증가 전망으로 5년래 최저치로 하락했음. USDA에 따르면 겨울밀의 43%가 출몰/아수출을 통급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1%포인트 상승, 5년평균 46%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함. 또한 미국산 밀의 낮은 가격경쟁력에 따른 수출수요 부진 역시 가격에 추가적인 하락압박을 가했음. 이어지는 최근거래에서 러시아 및 루마니아산 밀 120,000톤을 구매했으나 미국산 밀에 대한 거래실적은 없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가재수세 유입으로 3세전 하락세를 겪고 반등했으나 미국정부 보고서의 미국 농가들이 파종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로 인해 강보합 마감했음. 지난해 미국 중부지역은 파종에 이상적인 날씨로 파종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옥수수 수확량 및 수확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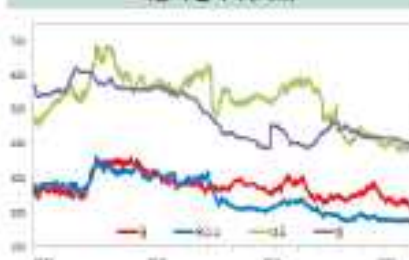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대두유 가격 이음연속 강세에 따른 파급효과 및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출수요 둔화로 상승했음. 또한 대두 선물시장 강세 역시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압박을 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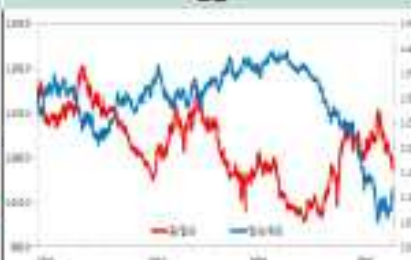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밀 수출가격은 수출수요 부진으로 보합마감했음.
■ 국제유가는 사우디의 대 유협 판매가격(COP)인상, 리비아 생산감소, 미 원유재고 감소전망 등으로 상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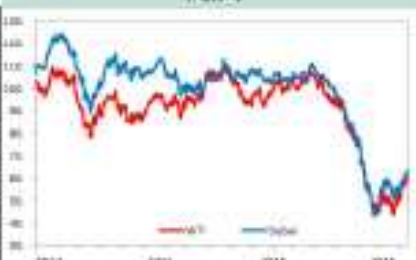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1	-	환율	원/달러	1,061	▲1.0%		
	옥수수	171	▼1.2%		달러/유로	1,118	▼0.1%		
	대두	393	▲1.3%		WTI	60.40	▲2.5%		
	쌀	395	▼1.3%		Dubai	63.28	▲0.4%		

주 1) 밀(US 557W Gulf), 옥수수(US 55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6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5.4(수출가격), '15.5.4(환율), '15.5.5(국제유가)이며 파급효과(국제곡물가격, 한국곡물, 한국곡물가격)의 연쇄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전남 청년농업인—곡성 불로치울금농장 노병철 대표

- 기능성 성분 흡수율 높은 흑울금 발효액 국내 첫 개발 -
- 전남도농기원 창업지원으로 효소 등 제조...브랜드화 시도
진도울금과 차별화로 백화점·건강식품 오프라인 매장 개척
100t 규모 토굴저장고도 설치..."치유 체험농장 만들겠다"
- "장기적으로 전남 곡성을 '대한민국의 오키나와'로 만들어 전 세계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는 장수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꿈입니다"
- 전남도농업기술원의 벤처형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울금 청년사업가로 변신한 곡성 불로치 울금농장 노병철(36) 대표. 노 대표는 울금의 쓴맛과 강한 냄새를 싫어하는 소비자를 위해 쓴맛을 줄이고 기능성 성분(커큐민) 흡수율을 높인 '흑울금 발효액'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 그는 "울금을 많이 먹는 인도와 일본은 치매, 중풍 발병률이 미국 등 선진국의 8분의 1도 채 안된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좋은 식품임에도 쓴맛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다가기 힘들어 고심하던 끝에 발효를 통한 흑울금 발효액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노 대표가 울금에 뛰어든 것은 우연이었다. 지난 2007년 전남대 정보통신공학부를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던 노 대표는 2009년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시험을

포기했다.

- 당시 곡성에서 울금 농사를 짓고 있던 어머니를 대신해 밭을 관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울금과의 인연이 시작됐던 것.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 낫설지는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시작한 울금 농사는 만만치 않았다.
- 특화되지 않은 곡성에서 생산된 울금의 판매가 쉽지 않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접 시·군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했다. 또 한때 분산 출하를 위해 저장했던 울금이 썩어 큰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노 대표는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가던 중 사고가 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노인분들이 도움을 줬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키우던 울금을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울금 농사를 시작했다"면서 "울금은 종자 보관이 힘든데 농사 초기 겨울철에 잘못 관리해 종자가 썩는 등 어려움을 겪어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다"고 회상했다.
- 낙담하던 노 대표는 포기하는 대신 본격적인 울금 연구에 나섰고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곡성·순천·구례 등의 울금을 왕실에 공납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는 다시 한번 울금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 노 대표는 울금을 재배하면서 소비층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중 울금의 대중화가 어려운 이유가 특유의 쓴맛 때문이라고 판단해 쓴맛을 줄이고 기능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 울금을 발효시키면 '커큐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에 착안한 노

대표는 흑울금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았다.

- 농업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흑울금, 환, 흑울금 가루, 흑울금 엑기스 등 흑울금 가공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 먼저 영양성분을 검사한 후 시제품 디자인과 BI와 CI를 개발하고 상표등록까지 마치며 흑울금 브랜드화를 시도했다.
- 이후 노 대표는 흑마늘의 원리에 착안해 울금을 발효 숙성시킨 흑울금 발효효소도 만들었다.
- 노 대표는 "농기원 지원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에는 울금의 쓴 맛이 상당부분 제거돼 울금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연농법 실천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해 진도울금과 차별화를 시도한 점을 적극 홍보했으며 백화점, 건강식품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개척해 흑울금 유통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 또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작목반을 통한 공동수확, 선별, 출하 시스템을 갖췄고 울금의 품질유지와 효율적인 분산출하를 위해 약 100t 규모의 토굴 저장고도 만들었다.
- 이 같은 노력으로 창업 5년만에 월매출 1억원을 달성했고 울금 작목반 역시 현재 20여명에서 내년에는 50여명 규모로 커질 예정이다.
- 노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울금 제품 개발에 나설 것이며 울금을 테마로 한 치유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면서 "특히 울금 종자 산업에 기여할 수 있게 연구과 끊임없이 지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남도일보

■ 농업 창업 모델 경진대회 영암 김태연 김스팜 대표 ‘착즙 과채주스 개발’ 대상

- 영암군 김태연(37) 김스팜 대표가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 주관의 ‘2015년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 ‘2015년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 대표는 경진대회에서 ‘순수 착즙 과채주스 개발 및 미디어 활용 홍보 마케팅’이라는 사업 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 부모의 가업승계를 위해 귀농한 김 대표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으로 생산된 과일만을 착즙해 타제품과 차별화된 주스 상품을 개발하고, 유기농 강황을 이용한 기능성 강황배 주스와 친환경 감을 이용한 천연발효 음료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도내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농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차세대 소득창출형 농업인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농촌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역 성공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예비 창업농 11명을 선발해 4월초부터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완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성공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광주일보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신청

- 신청기한 : 5. 22.한
- 접수기관 :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량 : 75,000ha(밭작물 25,000, 동계작물 50,000)
- 사업비 : 35,000백만원(국비 100%)
- 지원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250천원/ha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400천원/ha
(논재배 식량·사료작물) : 500천원/ha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가입품목 : 벼, 고구마, 옥수수
- 가입기간 : 5. 4. ~ 6. 12.(벼 4. 20.~6. 5, 고구마 5. 4.~5. 29. 등)
- 가입자격 : 벼 1천m², 고구마 2천m², 옥수수 3천m² 이상 재배농가 및 법인
- 사업량 : 600ha/46개 품목(본사업 28, 시범 18)
- 사업비 : 600억원(국비 300, 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120)
 - 재원비율(100%)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담 20
- 취급기관 : 지역농협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산정 지급

주간
33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